

## 루이스 어드릭의 『사랑의 묘약』에 나타난 문명 위기와 타자 윤리학\*

박 경 숙  
(전남대학교)

Park, Kyungsook. "The Crisis of Civilization and Ethics of the Other in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23-42. This paper is to examine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with M. Bakhtin's ethical approach. It is done by analyzing the crisis aspect of civilization in Native American life and exploring a concept of ethics of the other which Erdrich tries to represent through her novel. Native American way of life is based on object-centered ethics, free from subject-centered ethics which i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western civilization. Native Americans ar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American culture and catholic religion, but under the object-centered ethics they successfully establish their identities, restore relationships, and build a real sense of community. This course has the same way with Bakhtinian ethics of the other. According to Bakhtin, because all the events of the life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volvement of others, I-subject is necessarily oriented towards other, and in order to be real subject in the life, subject has to be answerable to other by doing responsible acts. This concept of ethics is directly reflected in Native American life, and the novel hereby presents us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from the crisis of civiliz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Louise Erdrich, *Love Medicine*, Native American, Crisis of Civilization, Ethics of the Other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2185).

## I. 들어가며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 역사는 백인 중심의 현대 서구문명 가운데에서 소외와 차별의 상황을 비슷하게 직면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흑인의 문제와 달리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을 말살하고 동화시키려는 법, 종교, 교육, 토지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 하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인류 최대의 인종 학살의 결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다. 미국 내 흑인 인구 12.4%에 비교하여 아메리카 인디언 인구가 약 2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예견된 결과이지만, 이는 또한 흑인의 민권 운동과 달리 인디언 공동체의 약한 결집력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 내에서는 절멸의 위기에 처한 민족의 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추어내지 않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인디언 문학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연구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는 치페와 족(Chippewa) 인디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인디언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루이스 어드릭(Louise Erdrich)의 『사랑의 묘약』(*Love Medicine*)<sup>1</sup>을 텍스트로 삼아, 20세기 대표적인 ‘타자의 철학자’로 언급되는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의 윤리학적 관점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 속에 나타난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문명의 주체 중심적인 윤리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적인 윤리에 기반한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표이다. 또한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 추구, 인간 관계의 회복, 그리고 타자들과의 (생활)공동체 구축을 이루어내는 삶의 과정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체의 정립과 인디언 공동체 의식 구현의 노정이 바흐친의 ‘타자 윤리학’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바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타자 중심적인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의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sup>1</sup> Louise Erdrich, *Love Medicine*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9)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용문은 괄호 안의 쪽수만 표시함.

보이는 주체 중심적인 서구문명이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서구문명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성장은 개인주의의 팽배와 전통적 가정의 해체 등 윤리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생명 경시 풍조와 자연 환경의 파괴,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로 인한 인류 공멸의 위험성을 불러왔다. 인류의 정신적 가치와 능력을 약화시키는 물질문명의 질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타자 윤리학’은 서구문명의 병폐를 치유하는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주지하듯 서구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중심적 사유 방식이 그 핵심이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후 근대적 전통은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내세우며, 주체(자아)를 독립된 개체로서 사유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것, 인간과 자연, 세계를 타자로 설정했다. 그 이후 전개된 근대성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주체의 독주, 타자 없는 주체의 역사를 드러내왔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20세기 ‘타자의 철학’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학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윤리의 생성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아 중심의 주체 철학의 근간을 뒤흔들며 개별적 주체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학자로 바흐친을 손꼽을 수 있다. 바흐친이 내세우는 새로운 윤리 개념은 타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아를 상정하는 근대적 주체 개념을 탈피한다. 나-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시·공간속에 타자가 있으며, 생성 중인 사건 가운데 함께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재 이전에 이미 타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이 요청되어 있다는 것이다(최진석 174). 그 윤리는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책임 있는(반응하는) 참여”(Bakhtin 『예술과 책임』 52) 속에서 실현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바흐친은 주체가 항상 그리고 이미 속해 있는 사건의 장(場)에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관심’과 ‘반응’(‘응답’)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며, 보다 실제적인 타자와 주체의 상호소통,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주체의 (타자)윤리학을 주장한다(『예술과 책임』 26-28).

최근까지 『사랑의 묘약』에 대한 국내 연구는 문화 민족주의, 다원주의, 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 에로스의 정치성, 부재하는 공동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

되어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민족 공동체, 복수 문화, 자연과 여성 등의 문제에 천착하여 현대 아메리카 인디언의 해체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소멸된 인디언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혼란과 존립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제를 통해서 서구문명이 당면한 위기의 상황과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해답을 바흐친의 윤리학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II. 현대 문명의 폐해와 공동체적 삶

21세기 인류 문명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 19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사회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물질문명이 정신문화를 앞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근대 서구문명은 괴물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이윤 추구만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와 ‘소비가 미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급기야 인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변모시켰다. 이 문명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으며 분명 인류의 발달에 기여했다. 삶은 전례 없이 편리해졌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비약적인 물질적 풍요는 역설적으로 정신적 빈곤을 가속화시켰다.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전통적 가치들, 즉 이웃과의 긴밀한 유대, 공동체의 정초적 가치, 자연과의 신비한 교감 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며 정신적 황폐가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랑의 묘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준(June)은 물질문명에 압살되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 자주 등장하여 그들에게 문명의 위험과 병폐를 상기시킨다. 그녀의 어머니가 숲에서 죽게 되자 그녀는 송진을 빨고 풀을 뜯고 꽃봉오리를 따먹고 살아남았다. 그녀의 근원적 정체성이 숲과 자연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리(Marie)는 자신의 여동생의 딸인 준을 양육하면서, “진정한 옛 인디언”(30)인 “일라이(Eli) 안에 숲이 있듯 준 안에 숲이 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었을 것이

다”(86)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며 운명적으로 정해진 삶 그 이상의 것을 이루려는 야망을 품는다. 그녀는 사촌 고디(Gordie)와 결혼하지만 그와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그와의 사이에 낳은 킹(King)과, 고디 다음으로 만난 게리(Gerry)와의 사이에 낳은 립샤(Lipsha)를 모두 마리에게 두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숲과 자연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버린다. 이렇듯 어머니의 부재는 그녀가 “자신의 의의, 실제, 땅과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Allen 209)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립되거나 버려지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상황은 그녀에게서 버림받은 킹과 립샤에게 다시 반복된다.

준은 도시에서 많은 도전을 감행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를 겪는다. 미용사, 비서, 종업원, 판매원으로서 준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허사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망가졌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여자로, 손톱이 지저분하게 자란 여자로, 미용실에 다녀오자마자 머리가 덩수룩하게 자라는 여자로 변해갔다. 옷에는 안전핀과 몰래 흘린 눈물 자국이 수두룩했다. . . .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윌리스턴이었는데, 카우보이처럼 차려입은 독신의 돈 많은 오일붐 쓰레기들이 득시글한 곳이었다.

As time went by she broke, little by little, into someone whose shoulders sagged when she thought no one was looking, a woman with long ragged nails and hair always growing from its beauty-parlor cut. Her clothes were full of safety pins and hidden tears. . . . her one last try had been Williston, a town full of rich, single cowboy-rigger oil trash. (9)

그녀가 돈 많은 독신의 백인 남성과의 하룻밤 가벼운 성적 상대로밖에 살지 못하는 모습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순수하고 벌거벗은”(7) 영혼이 거부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힘들게 살면서 치열하게 사랑하지만 끝내 자신이 원했던 아름다움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배금주의적 문명이 배태한 가혹한 현실의 패배자로 삶을 끝낸다.

준의 죽음은 작품 첫 부분에 기록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 립샤의 의식 속에 다시 떠오른다. “나는 그녀를 얼마나 희미하게 기억하는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그녀는 굶이치는 강물에 떠밀리는 거대한 외로움의 일부였다”(333). 그녀의 삶은 인간소외라는 물질문명의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킨다. 그녀는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온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희생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한 남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당신은 달라야 해요”(4)라고 절규한다. 존재는 사유되는 것이 아니고 나-주체와 타자를 매개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에서 단지 관여적으로(involved) 체험될 뿐이라는 바흐친의 주장대로(『예술과 책임』 43), 그녀는 현실적인 참여(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게 된다. 그녀는 백인 남성들과의 지속적인 사랑을 갈구하나 그저 일시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게 되며 평원에서 살면서 터득한 자연의 이치, 즉 “공기의 무게로, 구름의 무게로, 뺏속까지 흘렀을 동물적 본능으로”(10) 눈보라의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죽음의 귀향을 감행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녀는 방향감각을 잃지 않았다. . . . 심장이 오그라들고 피부가 터질 듯 얼어붙어도 상관없었다. 순수하고 별거벗은 그녀의 일부는 멈추지 않았기에.

그해 부활절에는 사십 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내렸지만 준은 물 위를 걸듯 눈밭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Even when it started to snow she did not lose her sense of direction. . . . Even when her heart clenched and her skin turned crackling cold it didn't matter, because the pure and naked part of her went on.

The snow fell deeper that Easter than it had in forty years, but June walked over it like water and came home. (6-7)

어드릭은 준을 통해 현 문명의 폐해인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파멸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어드릭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타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수용하면서 만들어가는 현재적 변화와 미래

적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예컨대, 모지스(Moses)는 소실된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해나가며 동시에 현실과 유리된 공동체를 생명력을 지닌 사회로 세워나간다.

모지스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대신에 그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 여기에서 그의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 엿보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나온 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다(Mies 4-5). 그는 무인도와 같은 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독거한다. 그가 사는 동굴 집에는 돌맹이, 나무 가구, 담요, 가죽, 벽화로, 주전자, 양철 깡통, 그리고 거울이 있을 뿐이고 음식은 늪의 차, 감자, 그리고 들장미 열매가 다이다. 그는 문명사회의 물질과 소비를 향한 욕망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나무, 풀, 꽃, 고양이와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의 자급으로의 전환은 자연의 유한함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최소한으로 소비하여 최대한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연과 함께 하면서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이 공동적 관계를 이루며 서로에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윤리적’ 삶인 것이다. 이곳 섬은 주체-인간의 일방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체를 비롯한 수많은 타자들(자연)과의 접촉지점인 것이다. 이곳은 파괴적이며 비인간적인 물질문명과 달리 생명 존중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관여하는 장소이다. 그가 사는 매치마니토(Matchimanito) 호수의 섬은 만물이 생동하고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간직되었던 과거 인디언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다.

보호구역에 처음 질병이 시작되자 모지스의 어머니 나나카웨페네시크(Different Thumbs 여러 엄지손가락)는 그를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미 죽어 망령이 된 것처럼 꾸며 정령을 속인다. “그의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무덤 집을 짓고, 정령이 먹을 음식을 길바닥에 내놓고, 옷도 거꾸로 입혔다”(74).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그는 눈에 띄지 않은 채 살았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중에 마을 전체에 그 기침병이 퍼지자 그는 몇 마리 고양이를 데리고 매치마니토로 영원히 떠난다. 이 섬에서 그는 자급자족의 독거생활을 이어가며 예전과 다름없이 바지도, 셔츠도 거꾸로 입고 모카신도 발꿈치에서 끈을 묶

는 망자의 모습이다. 그는 이미 결정되어 버린 세계, 사전에 완성된 과거의 세계에서 비가시적 존재로 살고 있으며, 이런 식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Bakhtin 『예술과 책임』 34-35). 그는 “실천으로서의 생, 행위로서의 생”(Bakhtin 『예술과 책임』 35)을 살고 있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가까운 친척인 룰루(Lulu)가 부족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려고 섬으로 들어온다. 부족민들에게 그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로 식인 속성의 위인디구(wiindigoo)이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은 책임과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불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녀와의 만남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사고되는 것이 아니며, 나-주체와 타자를 매개로 실제로 선택의 여지없이 수행되는 것”(Bakhtin 『예술과 책임』 43)으로 체험한다. 바흐친의 말대로 존재 개념은 단지 “현실적인 참여”, 즉 “행위”(『예술과 책임』 44)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녀는 망자의 외모와 행동을 보이는 그를 마주하고 나서 “그의 옷을 바로 입혀주고 . . . 그의 무덤 집을 허물고 . . . 그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 . . . 죽은 자를 속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깃든 이름을 말하게”(81) 해준다. 그는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마니두그(manidoog 신 또는 정령)가 만든 것처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77) 얼굴을 되찾는다. 이제 그는 현실 세계에서 산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다. 죽어있던 주체가 타자와 공존하는 주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지스가 룰루와 함께 이루는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감각적인 쾌락 추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땅, 자연과 연결되고 우주적 삶과 연관되어 있다. 동굴에서 긴 겨울 동안 그는 룰루와 함께 배 속의 아기를 부둥켜안고 “하나의 형태로”(81) 잠을 자며, 고양이들 역시 그들의 몸 위를 오르내리고 그 근처에서 웅크린다. 매치마니토라는 시공간은 인간-주체와 자연-타자 사이의 벽이 실재하지 않으며, 신 아래로 인간, 인간 아래로 동물이 존재한다는 서구식의 위계적 인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동물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자기 경계 없이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공존할 뿐이다. 분명 그의 이러한 모습은 나-주체도 자연-타자도 아니며 섬이라는 이 시공간에 ‘공동적 관계’로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흐친에 따르면 이 관계는 삶의 특정한 리듬을 구성하며 특



정한 활동의 장(場) 속에 함께 포함되어 기능하게 되며, 나-주체 대(對) 타자는 주도권을 다투는 가치론적 구별의 경쟁자들이 아닌 사건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인 것이다(최진석 190). 그는 자신의 존재를 고립상태가 아니라 자연-타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곳 섬이면서 룰루이고 고양이들이기”(83) 때문에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며 자연-타자와 하나된 공동적 삶을 지속해나간다.

우주적 삶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태도에 있어서 서구 백인과 큰 차이가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의 신이 준 것으로 굳게 믿는다. 그것도 당대에만 살도록 준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 살도록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백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Blaisdell 34). 작품 속 룰루 역시 미국 정부의 인구조사원과 측량사들에게 땅 조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인구조사라는 미명하에 없애려는 인디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간파한다. 또한 그녀는 헨리의 땅을 등록하거나 구입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인디언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이 딛고 있는 1피트, 1인치의 땅도, 그것이 최고층 빌딩의 꼭대기라 해도 인디언의 것이다”(278)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녀는 조상의 땅에 토마호크(tomahawk) 공장을 지어 생산한 벵글 팔찌 구슬과 플라스틱 곤봉 같은 기념품을 판매하여 부족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정부와 정부 측 인디언의 계략을 비난한다. 그것은 “허황한 꿈”이며 “잘못된 가치”라고 외치며 “헛된 꿈의 물건”(280)을 똥에 비유하며 부족민을 향해 호통친다. 그녀는 인디언이 만들어내는 똥 같은 물건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탐욕과 일시적인 쾌락만을 채워줄 뿐이며, 이것은 땅, 자연을 지속 불가능하게 개발해나가는 백인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임을 알아차린다.

이와 유사하게 역사적으로 인디언 수 족(Sioux) 추장인 ‘앉아 있는 황소’(Sitting Bull)는 후손에 대한 인디언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내가 이 땅을 소중하게 보살피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Blaisdell 173)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랄 것이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이익까

지, 심지어는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생각한다 고 말한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배려하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달리 서구문명의 백인들은 후세를 염려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더 관심을 둔다. 백인들은 석유와 석탄 같은 천연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몇 십 년 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건축개발업자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남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 재앙이나 생태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미래의 생태적 자멸을 피하기 위해서 인류 공동체는 지금의 자본주의적 문명의 생존방식과 결별하고 혁신적인 방향전환을 시급히 행해야 한다.

### III. 타자(성) 인식과 책임의 윤리

이 작품의 핵심인물인 마리는 행위가 벌어지는 장(場)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녀는 주체와 타자의 연계를 강조하는 타자 중심 윤리에 근거한 방식으로 삶의 비전을 세우고 완성해간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열병으로 잃은 뒤 데려온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딸인 준과 준의 아들 럽사, 그리고 자신의 남편 넥터(Nector)의 어머니인 러시스 베어(Rushes Bear)를 돌보고 양육한다. 그녀의 행위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타자 존중의 태도에 다름 아니다. 바흐친의 주장대로 인간은 함께 있는 타자들과 참여하는 사건의 연속에 살고 있기에 “타자에 대한 고려” 없이 주체의 행동의 조건을 결정내릴 수 없으며, 그래서 “나-주체의 윤리성”은 오직 타자에 대한 인격적인 태도와 애정 어린 이해를 통해서 확보되며 따라서 책임 있는 행동이 나-주체에게 존재 이전에 이미 요구된다(최진석 174). 여기서 “책임”은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로 주체의 “응답능력”(answerability)(최진석 191)이다. 주체가 타자와 공감하며 타자와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다. 마리가 보여주는 돌봄의 행위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로 이어지는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며,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바흐친이 역설했던 “책임 있는 행동”(『예술과 책임』 22)을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것이 발생한다. 이

러한 바흐친식의 윤리는 마주하는 사건에서 적극적인 응답으로 타자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방식과 상통한다.

그녀는 출산의 경험을 통해 러시스 베어를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인식한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려운 집안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늘어놓는 러시스 베어를 “깃뵈아 끄고 싶은 뜨거운 불”(101)이고 “어느 자식보다 골칫덩이”(101)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자신만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받고 있음을 목격한다.

“저 필라져 여자가 받지 않는다니 어머니가 받으세요.” 넥터가 말했다.

“네 손에서 나온 돈은 안 받는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예요.” 그가 말했다.

“이제 아니야, 나는 딸만 하나 있다.”

“저 사람이요?”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라자르 사람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다 창피하구나.” 러시스 베어가 말했다. “너는 저 애가 흐느끼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게다. 이번에 아이를 낳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너는 결코 모르겠지.”

“If that Pillager won't take it, you can,” said Nector.

“Not from your hands.”

“I'm your son,” he said

“No more. I only have a daughter.”

“Her?” he said, almost laughing. “But she's a Lazarre.”

“You shame me,” Rushes Bear said. “You never heard any wail out of her, any complaint. You never would know this birth was hard enough for her to die.” (100-01)

그녀는 러시스 베어를 자신의 해산을 돕는 산파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출산의 순간에 자신들의 옛 언어인 치페와어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 이외의 타자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러시스 베어를 “내 어머니, 내 핏줄로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 . . 내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내 생명의 형상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101)고 깨닫는다. 마침내 그녀는 러시스 베어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에 대해 이해와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 늙은 여인의 여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보게”(101) 된다. 그녀의 행동은 자아 중심적인 근대적 사유방식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존재와 부름에 반응하여 타자를 받아들이며 타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는 바흐친의 “책임”, 즉 주체가 타자들과 능동적으로 맺는 관계이자 적극적인 응답 능력에 상응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벡터는 출산을 도와준 어머니에게 돈 봉치로 보상하는 장면에서 타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재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단면을 드러낸다.

마리는 실명의 위기로 시력 수술을 받은 룰루를 간병하기에 이른다. 두 사람은 일평생 벡터를 사이에 두고 아내와 연인으로 원수시간이었지만 이제 벡터의 죽음을 계기로 서로를 새롭게 마주한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함께 애도했다. . . . 처음으로 다른 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았고, 놀랍게도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293-94). 이러한 룰루의 회한의 심경을 헤아리는 마리는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벡터와 그의 사랑을 계속 받았던 룰루를 모두 용서한다. 마리는 타자의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타자에게 봉사하는 내적 겸손을 획득하게 되며 룰루를 애정으로 보살핌으로써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바흐친적 의미에서 “책임”은 책임에 대한 강박이나 도덕적 요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주체와의 상호 관계에서 타자에 대하여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예술과 책임』 77) 반응하는 능력이며 오래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마리는 과거에 내비쳤던 룰루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버리고 그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정립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삶을 완성해나간다.

비평가 캐서린 레인워터(Catherine Rainwater)는 어드릭이 종교적, 정신적 신념 체계의 충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녀의 작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406). 예컨대, 치페와족 삶의 여러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적에 대한 가톨릭 교리와 원주민의 전통적 신념 사이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카렌 맥키니(Karen J. McKinney)도 어드릭 소설의 근본적인 주제는 가톨릭교의 치페와족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이라고 강조한다(152). 한 민족의 정신적 신념이 외부의 신념 체계로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강요되면 그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파괴는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서

구문명의 외래 종교와 원주민의 고유한 토속 신앙이라는 두 신념 체계 사이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으려는 립샤의 투쟁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 어드릭은 립샤의 이야기에서 모든 치페와족의 역경의 축소판을 그려내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전체의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껏 립샤는 미사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심리적 위안을 얻곤 했다. 그러나 함께 미사를 보는 중에 할아버지가 목주 기도를 드리면서 고향을 지르듯 기도하기도 하고 영화배우처럼 간청하며 다칠 만큼 자기 가슴을 세계 치는 광경을 목도한 후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거든”(231)이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그는 큰 충격에 빠진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자신이 백인들에 의해 부족민들에게 찢려 넣어진 가톨릭의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할아버지야말로 내가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분이였다”(231)라고 술회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 폭력, 난혼, 가정 파괴, 문화 붕괴 등 자신의 가족을 계속 괴롭히는 문제를 떠올리면서 하느님은 마치 귀를 막은 미국 정부처럼 귀가 멀었다는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조한다. 또한 그는 인디언의 옛 신들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알고 있지만 부족민들이 제대로 간청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대로 그러한 능력은 “가톨릭이 힘을 얻자 치페와족에게는 잃어버린 능력이 되어버렸다”(232).

립샤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톨릭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두 신념 체계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마리는 그가 지닌 ‘손’의 특별한 능력을 믿기에 벡터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에게 원주민 토속 종교의 상징물인 “사랑의 묘약”(226)을 제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선대 치페와족(캐시포, 필라져, 나나푸시 세 가족)이 모두 신통력을 지녔으며 이 사랑의 묘약은 치페와족의 특별한 장기(specialty)이다. 마리의 요청은 그녀가 한 때 백인의 가톨릭에 편승했지만 이제는 치페와족과 그 부족의 행위를 받아들여 그에게 영적인 힘을 일깨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Walsh 109). 그는 “치료의 능력이 있으며”(227)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내게서 흘러나온다”(227)라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마리를 돕기 위해서 평생 짝짓기를 하는 기러기 한 쌍을 죽여 벡터에게 그 심장(사랑의 묘약)을 먹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늑에 앉

아 하루를 기다렸지만 기러기를 잡지 못하자 그는 기적을 위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식료품점에서 구입한 열린 칠면조 심장에 신부나 수녀의 축복기도를 받지 못하자 자신의 ‘손’을 은밀하게 성수에 담갔다가 그 칠면조 심장에 직접 축복한다. 이러한 그의 이상한 일련의 행동은 그의 갈등상태를 반영하는 뚜렷한 징후로 보인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선대의 전통적 신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과거 전통으로의 회귀는 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또한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입된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역시 어려워 보인다.

할아버지가 위조된 기러기 심장을 먹다가 질식사하게 되자 립샤는 자신이 속임수를 쓰고 진정한 신앙심 없이 백인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손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결론짓는다. 그와 대부분의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은 기적은 고사하고 매일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저 의식적인 행동들로만 남아 있다. 그는 가톨릭의 기적도 토속 종교의 마법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한다. 결과적으로 어드릭은 두 신념 사이에 얽혀있는 립샤를 통해서 서구 가톨릭 문명의 “잘못된 기적과 실패한 비전”(McKinney 152)을 암시한다.

보호구역 내 부족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문명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실체를 확인한 립샤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비전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도망치듯 보호구역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그는 재향군인을 위한 호텔 방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군인징집사무소에 붙은 “오늘 군대 입대”(JOIN TODAY'S ACTION ARMY)(305)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즉흥적으로 입대 신청을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무모한 결정에 후회한다. TV 드라마 속 퇴역군인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용맹했던 인디언 전사의 모습이 이미 사라졌으며 현재의 전사 정신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깨닫는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했다. 여기서 이렇게, 호수의 파도에 던져진 스티로폼처럼 빙글빙글 떠다니면서 쓰레기처럼 망가지고 쪼개져 물속에서 썩다 인생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니 오싹했다.

Not much in that, less than nothing. It gave me a sick chill to think of ending up here, like foam thrown off the waves of the lake, spindrift, all warped and cracked like junk and left to rot. (306)

립샤는 함께 술을 마신 퇴역군인이 던진 술병에 머리를 얻어맞고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그는 자신의 손의 능력에 대하여 개인적 재능의 측면이 아니라, 독자한 전통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그에게 결코 무익하거나 그와 유리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능력도 선조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가 아픈 사람을 손으로 낫게 하거나 문제를 고치는 신통력은 선대 필라져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이며, 삶에 대한 통찰력은 룰루에게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는 예지력은 마리에게서 터득한 능력인 것이다. 이런 능력들의 끈이 연결되자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306)고 외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치폐와죽을 가들 수 있는 똥간 같은 콘크리트 감옥은 없다. . . . 그것은 내 아버지 게리 나나푸시가 직접 한 말이며 . . . 내가 예견하기로 그는 머지않아 자유를 얻으려고 탈옥할 것이다*”(307, 저자의 이탤릭체). 이제 그는 친부와의 만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부형제 간인 킹의 아파트로 돌진한다. 처음으로 만나게 된 립샤와 게리는 준의 차(어머니 준의 사망보험금으로 킹이 구입한 자동차)로 캐나다로의 탈출여행을 감행하며 그러는 중에 서로를 깊이 알게 된다. 이 새로운 친밀감은 가족의 공통 병력인 심장병으로 게리가 군대를 면제받았듯이 그도 그럴 것이라는 게리의 이야기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는 게리를 만나 “아버지의 아들”(332)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비로소 그는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약하게나마 부족의 과거 전통과의 연결을 상상해 보기도 하며 어머니 준을 떠올리며 “실은 그녀가 내게 해준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었다. . . . 그녀가 나를 캐시포 할머니[마리]에게 맡긴 것은 다행이었다”(333)라고 생각하며 준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그가 아버지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부재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족과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해체된 인간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립샤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현재적 삶의 실재와 미래 삶의 비전을 탐색하도록 추동한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손수건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가 보호구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마리가 버스 요금을 싸두었던 그 손수건은 그가 아버

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고 마침내 인디언 공동체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마리는 이 작품 전체에 걸쳐 립샤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는 데에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지금껏 그녀의 손은 자신의 손바닥 상흔이 입증하듯 서구문명의 강압을 견디었으며 부족의 아기를 받아 먹이고 떼렸고 어린 남자들을 진창에서 건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는 립샤가 문명의 공간에서 부족의 지대로 연결된 다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건널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렇듯 마리는 일생동안 ‘돌봄’과 ‘책임’을 실천하는 타자 중심의 윤리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으며 이는 바흐친의 ‘타자 윤리학’의 근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 작품의 배경인 노스다코타(North Dakota)에서 살았던 젊은 인디언들은 부족이 붕괴되고 땅은 앞으로의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은 가족을 의미하며 단순한 혈통이 아닌 확대된 가족이며 씨족, 공동체, 자연과의 의식적인 교감, 모든 창조물에 대한 감각적이고 강력한 생명적 인식 등을 의미한다”(Lincoln 8). 그들에게 할당된 땅마저 대부분 백인에게 빼앗겨 “영원히 상실되었다”(12). 부족과 땅과의 연결이 끊기고 생계 수단이 사라지자 립샤, 킹 그리고 앨버틴(Albertine)은 보호구역을 떠나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찾으며 힘들게 살아간다. 인디언들의 이러한 분열된 상황은 아메리카 인디언 작가 셔먼 알렉시(Sherman Alexie)의 소설 『어느 파트타임 인디언의 진짜 일기』(*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의 주인공 주니어/아놀드를 연상시킨다. 인디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백인으로 대표되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니어는 인디언이면서 인디언으로 살아가는 만큼만 인디언이며 소설의 제목처럼 “파트타임”(part time job) 인디언인 것이다. 어드릭은 많은 미국 원주민 소설에서 다루는 땅과 자연, 문화와 전통의 연속과 조화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대신 어드릭은 부족의 신성한 의식, 종교적 의례, 문화적 정체성 등이 사라져 버린 “문화적 상황”(Flavin 64)을 묘사한다. 어드릭은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위기적 상황을 재현해 보인다.

어드릭은 이러한 치페와족의 멸절 위기의 상황을 “마른 땅”(333)으로 비유한



다. 부족민들은 현재 물이 땅과 분리된 것처럼 부족의 전통, 신념, 과거가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우며 우울증, 소외감, 패배감에 휩싸여있다. 수백 년 동안 행해진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로 점철된 서구문명의 폭압으로 어드릭의 인물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 폭력, 자살, 범죄, 거짓 등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개인과 민족의 비극적인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 원주민들의 사냥터였던 땅을 빼앗아 윤택한 삶을 누리던 백인들이, 알코올 중독, 빈곤, 실업, 만성적 절망감 등으로 고통 받는 아메리카 인디언 이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역사적 역설은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립샤의 행보로 대체된다. 지금껏 그는 두 신념 체계 사이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한다. 그는 강에 담배를 바치던 조상에 대한 기억과 “굽이치는 강물에 떠밀리는 거대한 외로움”(333)이었던 준에 대한 회상을 마치고 강을 건너 준을 집으로 데려간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333)이며 그의 앞으로의 새로운 삶의 출발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아낸다. 친척 앨버틴의 고백처럼 그는 지금의 이 “깊고 컴컴한 아픔의 공간 위에 걸린 흔들림 없는 다리”(38)가 되어 그들 부족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게 안내해줄 것이다.

#### IV. 나가며

근대 서구의 물질문명과 백인사회가 소수의 유색인종의 존립을 흔들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 이외의 모든 것들을 주체를 위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구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잔혹한 폭력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 작품에서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수녀원에서 레오폴다(Sister Leopolda) 수녀가 성스런 의식처럼 자행하여 마리의 손바닥에 남긴 상흔이다. 그것은 가톨릭으로 대변되는 서구문명의 폭력을 상징하며 마리가 그 대표적인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레오폴다 수녀가 마리에게 행한 일들은 종교적 의식이 아닌 단순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마리의 시각을 통해

폭로된다. 그 다음으로, 백인 남성들과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죽음에 이른 준의 모습은 인디언의 정체성 추구의 노력이 백인 사회에서 불가능함을 적시한다. 또 다른 예로, 백인식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숲에서만 살아온 쌍둥이 형제인 엘라이가 인디언식 생활 방식과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달리, 인디언들을 교화하여 백인식의 문명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인디언 기숙학교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벡터는 그 영리함과 충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기억상실을 앓고 있다. 그의 기억상실증은 다름 아닌 백인식 문명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주체가 타자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유색 인종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같은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은 방치되어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리가 타자들과 공명하며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인디언 공동체 내에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리의 돌봄과 책임을 기조로 한 타자 중심 윤리는 다양한 타자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압된 립샤라는 인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립샤의 귀환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 보호구역으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도, 서구문명의 고질적인 질병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예찬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서구문명의 중요한 가치인 개인주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서구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나쁜 속성이 되었다. 어드릭이 마리와 립샤 이야기를 통해서 서구문명을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주체 중심적인 윤리가 아닌 타자 중심의 새로운 윤리를 실현해 나가기를 소망한 작가적 인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바흐친 사유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게 어드릭은 주체와 타자가 서로의 '각각성'을 내세우며 홀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타자성'을 근거로 서로에게 '타자적'으로 섞이고 변형되는 과정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새로운 윤리를 잉태할 새로운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자멸하는 서구문명을 변화시킬 구체책으로 타자성의 윤리, 타자에 대한 윤리를 구현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

## Works Cited

- Allen, Paula Gunn. *The Sacred Hoop: Recovering the Feminine in American Indian Traditions*. Boston: Beacon P, 1986. Print.
- Bakhtin, Mikhail M.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Trans. V. Liapunov. Univ. of Texas Press, 1990. Print.
- Bakhtin, Mikhail M. *Art and Answerability*. Trans. Geonyoung Choi. Seoul: Literature Edition PPul, 2011. Print.  
[미하일 바흐친. 『예술과 책임』. 최건영 역. 서울: 문학에디션 펄, 2011.]
- Bakhtin, Mikhail M. *The Aesthetics of Words*. Trans. Heesook Kim and Jongho Yoo. Seoul: Gil, 2007. Print.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김희숙, 박종소 역. 서울: 길, 2007.]
- Blaisdell, Robert. *The Great Speeches by Native Americans*. Mineola, New York: Dover P, 2000. Print.
- Choi, Jin-seok. "Ethics of the Other: Bakhtin and Levinas."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21.3 (2009): 173-95. Print.  
[최진석. 「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흐친과 레비나스」. 『노어노문학』 21.3 (2009): 173-95.]
- Erdrich, Louise. *Love Medicine*.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9. Print.
- Flavin, Louise.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Loving Over Time and Distance," *Critique* 31.1 (1989): 55-64. Print.
- Lincoln, Kenneth. *Native American Renaissance*. Berkeley: California UP, 1983. Print.
- McKinney, Karen Janet. "False Miracles and Failed Vision in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Critique* 40.2 (1999): 152-60. Print.
- Mies, Maria and Bennholdt-Thomsen, Veronika.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Trans. Kumjimo. Seoul: Dong-Yeon Press, 2013. Print.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꿈지모 역. 서울: 동연, 2013.]
- Rainwater, Catherine. "Reading between the Worlds: Narrativity in the Fiction of Louise Erdrich," *American Literature* 62 (1990): 405-22. Print.
- Walsh, Dennis. "Catholicism in Louise Erdrich's *Love Medicine* and *Tracks*,"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25.2 (2001): 107-27. Print.

박경숙 (전남대학교 / 강사)

주소: (6167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17번길 22 광명아파트 1동 306호

이메일: uribomull22@naver.com

논문접수일: 2021. 09. 30 / 심사완료일: 2021. 11. 10 / 게재확정일: 2021. 11. 10